

#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는 완전 육계 계열화 업체로 자리매김... 계육산업의 미래개척에 앞장서는



(주)일조코리아 김일수 대표이사

1986년에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1995년 WTO 출범 등으로 인해 국내 육계사육농가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커졌고, 전업농가 육성에 따른 정부 정책으로 육계 계열화 사업은 육계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로 확실하게 자리잡았다.

현재 국내 육계산업에서 계열화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75% 이상으로 이는 WTO 체제, 한·미 FTA 시대에서 우리나라 육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 비중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육계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업체인 (주)일조코리아도 지난해 사육에서부터 도계에 이르는 통합 경영 체제를 구축했다.

## 20년 전통의 축산업체인 (주)일조코리아

육계 계열화 전문업체인 (주)일조코리아(대표이사 김일수)는 지난해 11월 도계업에 진출, 생산에서 가공 및 유통체계를 갖추고 계열화 사업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주)일조코리아는 1997년 5월 국내 최초의 개인법 인체인 (주)대한축산으로 축산물 유통 및 유사 계열



‘하이팅’을 외치는 일조코리아의 임직원들(좌로부터 차준성 이사, 이창남 이사, 김일수 대표이사, 이우주 전무, 한일현 상무)

화 업체로 출발했다. 외부 부화장에서 병아리를 받아 농가에 공급해오다 병아리 공급에 어려움을 겪자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대한부화장을 준공하고 부화업에 진출했다. 자체적으로 우수한 병아리를 생산해 농장에 공급함으로써 병아리 수급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산비절감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같은 해 8월 (주)대한냉동을 인수, 육계 전문업체로 성장했으나 자체 도계장이 없어 경영의 한계를 겪어오다가 2006년 11월 HACCP 인증을 받은 (주)아산코리아를 인수하고 지금의 (주)일조코리아로 상호를 변경, 비로소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육계 계열화 업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주)일조코리아는 현재 종계 30만수 규모의 종계장과 부화실 16기를 갖추고 주당 15만수의 병아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120개의 계약사육 농가에서 연간 약 1천5백만수의 닭을 사육하고 있다. 또한 일일 도계량은 6만수로 지난해 매출 200억원을 기록했다.

(주)일조코리아가 처리하는 품목은 육계, 삼계, 토종닭, 노계 등으로 육계의 경우 서울·경기, 충청, 전남지역에 대리점을 통해 납품하고 있으며, 삼계와 토종닭은 OEM 방식을 통해 임가공하여 납품하고 있다.

(주)일조코리아는 현재 차량별, 농가별로 샘플을 채취해 대장균 및 살모넬라, 항생제 검사 등 철저한 위생검사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닭고기만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육계 계열농가와 계열화 업체는 따로 떨어진 관계가 아닌 상호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공생관계다”라고 잘라 말하는 김일수 대표이사의 확고한 의지는 육계사육농가에도 큰 힘이 되어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육계를 생산하는데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김일수 대표이사는 “사육만으로는 사업의 한계가 있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도계장 인수가 불가피했다”며 “아직 이 업계에 대해 100% 터득하지 못한 상태라 많은 시행착오를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이 위기를 직원들과 한 몸이 되어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농장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김일수 대표이사는 (주)일조코리아의 모체인 (주)대한축산 시절부터 ‘농가가 우선’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 ‘농가가 살아야 회사가 산다’는 생각이 김 대표의 확고한 기업 마인드다.

이는 2003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당시만 봐도 알 수 있다.

AI 파동으로 국내 육계관련 업체들이 힘들어할 때 김일수 대표이사는 농가 챙기기에 먼저 나섰다. 농가사육비 정산을 10일 이내로 하고, 농가 형편에 따라 선급금 제도를 시행했다.

또한 병아리 값이 폭락 시에는 병아리 가격 단가를 시세에 기준하지 않고 고정단가를 적용해 농가를 보호했다.



현재 일일 6만수의 닭이 도계되고 있다.



철저한 위생검사를 통해 안전한 닭고기 공급

이처럼 (주)일조코리아는 농가와 업체의 상부 상조를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에 앞장서면서 국내 육계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 도계장 신축으로 보령지역의 최대 육계 계열화 업체로 우뚝 서다

(주)일조코리아는 올해 1월 계열화 사업 확대를 위해 충남 대천 소재 일일 13만수의 도계능력을 갖춘 신규 도계장을 착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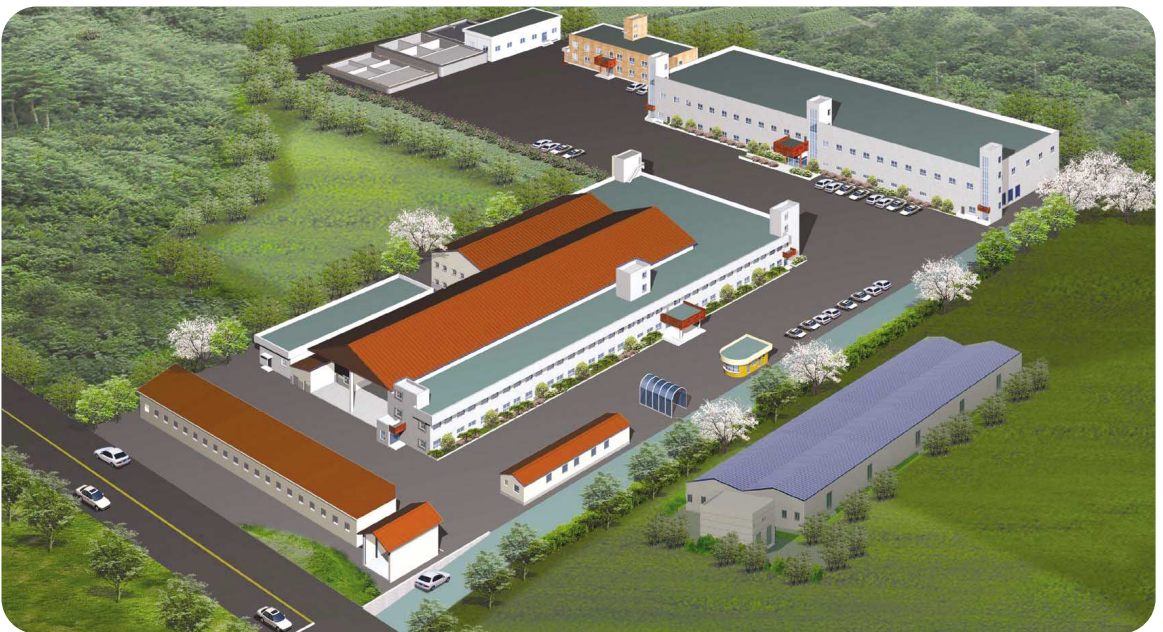
이번에 신축되는 도계장에는 부분·절단·가공 시설을 갖추어 동시에 육가공 공장(연 생산량 4,700톤)을 도계장과 연계에 신축하고 있다.

이 도계장이 완공되면 (주)일조코리아는 도계

장, 가공장, 육가공 공장을 모두 갖추어 따라 물류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납품위주의 영업체제에서 벗어나 자체 유통까지 가능하게 됨으로써 계열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많은 비바람을 맞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김일수 대표이사. 머릿속엔 기업의 핵심 경영 방침에 대한 많은 밑그림들이 그려져 있다고 한다. 그 밑그림이 하나의 작품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

- 취재 · 김효진 기자(hj@chicken.or.kr)



새로 신축되는 도계장 조감도